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미 숙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강사

The Effects of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Relating to Appearance on Adolescents' Body Images and Clothing Behaviors

Mi-Sook Le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8. 3. 20, 심사(수정)일: 2008. 6. 17, 게재확정일: 2008. 7. 18)

ABSTRACT

The pro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 the effects of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toward appearance on adolescents'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s, and to analyze these effects by adolescents' sex and age variables. The research method was survey and the subjects were 447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Daejeon, Korea.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 measuring instruments;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toward appearance, body image, clothing behaviors, and demographic attribu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t-test, variance analysi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adolescents showed positive attitude on sociocultural values toward appearance, and fema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vealed higher level of internalization than male and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3 factors emerged in body image(appearance interest, appearance evaluation, and weight concern) and 4 factors emerged in clothing behaviors(clothing interest & psychological dependency, clothing ostentation, clothing conformity, and clothing comfort). Third,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toward appearance had important effects on adolescents'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s; the adolescents who had high level internalization showed more interest on their appearance and weight and higher clothing interest & psychological dependency and clothing ostentation and lower clothing comfort than other adolescents who had middle or low level internalization. Forth,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toward appearance showed many different effects on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s by adolescents' sex and age variables.

Key words: socio-cultural values towards appearance(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
internalization(내면화), adolescence(청소년기), body image(신체이미지), clothing
behaviors(의복행동)

I.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일생 중 외모와 의복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큰 시기로, 이 때 형성된 신체이미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신체나 외모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이미지는 그 사회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¹⁾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은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데, 이상적인 외모는 사회적 행복이나 성공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결합되어 더욱 그 중요성이 강화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매일 TV나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접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에 노출된다. 따라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형성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신체이미지, 자아개념, 외모관리행동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²⁾³⁾

현재 우리 문화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외모는 입체적인 얼굴과 긴 팔다리를 지닌 서구적인 외모로서 무엇보다도 날씬함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평가한다. 날씬함에 대한 선호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경향이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마른 외모를 이상적이라 여기면서 지나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의 유행 등과 같은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⁴⁾ 특히 청소년들은 아직 자아개념이 형성되지 않아 외부의 여러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감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매스미디어에서 보이는 비현실적으로 날씬한 연예인들의 외모는 이들과 동일시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생 중 청소년기가 가장 취약한 시기로 나타났고,⁵⁾ 매스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더욱 불만족하고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⁶⁾⁷⁾

한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개인의 신체이미지 및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각 개인이 이러한 가치관을 얼마나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내면화하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현대 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얼마나 내면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정도를 알아보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이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영향과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외모와 의복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란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각 문화의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승인하여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은 주어진 문화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승인되어 각 개인의 미에 대한 수용과 기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이를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와 관련

하여 조사한 연구는 아직 드물며 최근에 와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수경, 고애란⁹⁾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여자 중학생의 신체이미지와 자기존중감, 의복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족,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에 의한 영향이 낮게 나타나 매스미디어에 의한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밝혔다. 고은주, 장남경⁹⁾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체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TV가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었으며 청소년들은 TV를 보고 난 뒤 친구들끼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기준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적인 신체상의 형성과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학생들은 친구의 영향이 더 큰 반면 여학생들은 TV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매스미디어에 의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명, 고애란¹⁰⁾도 청년기 여성은 매스미디어에 비취지는 이상적인 외모를 통해 이상적인 미의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체적 외모에 대해 열중하는 인지적, 행동적 성향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한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매체의 노출이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장희순, 김태련¹¹⁾은 연령에 관계없이 날씬한 여성이 등장하는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은 자신과 이상적인 신체이미지 지각의 차이가 커지고 신체존중감이 저하되었으며, 뚱뚱하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은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금희¹²⁾의 연구결과에서도 매체를 통한 이상적 이미지의 내면화가 자신의 신체이미지 지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를 통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매체에서 보여 지는 외모에의 내면화 정도가 강할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상으로서, 환경으로부터의 새로운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되고 자아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¹³⁾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와 유행 등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춘기와 함께 시작되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래집단과 같은 준거집단의 평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와 사회성의 발달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많은 관심을 지니며 자신의 변화된 신체를 지각하고 새로운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로,¹⁴⁾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¹⁵⁾

신체적인 외모나 매력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신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사회의 가치관이나 통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¹⁶⁾ 현대사회의 이상적인 신체외모는 주로 매스미디어에 의해 형성되는데, 청소년들의 중요한 동일시 대상으로 보여 지는 연예인들의 외모는 특히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가영¹⁷⁾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의 외모나 의복을 멋있다고 생각했으며 이 중 약 30%는 연예인의 외모나 의복에 대하여 직접적인 모방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지나치게 마른 몸매에 대한 선호는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불만족, 다이어트, 섭식장애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이미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에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¹⁸⁾¹⁹⁾²⁰⁾ 최근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²¹⁾ 우리나라 여학생의 87.8%가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하며 정상체형인 학생의 69.6%가 자신이 비만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신체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는 연구결과마다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자신을 더 뚱뚱하다고 지각하였으며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²⁾²³⁾ 한편 신체이미지는 의복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 외모와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려고 노력하며 의복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하고 성적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한다고 하였고²⁴⁾,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닌 사람은 의복에 대한 흥미가 높으며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3. 청소년기의 의복행동 특성

의복은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외모의 부분이고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체의 연장으로서 개인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나 느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착용자의 성격, 태도,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반영한다.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한 흥미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의복을 중요시하고 새로운 유행이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므로 의복이 인간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크게 적용되는 시기이다.²⁶⁾

MacGillivray와 Wilson²⁷⁾은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의복선택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어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있어 연령과 성별이 주요 변수임을 나타내었다. 고은주, 장남경²⁸⁾은 남녀 중·고등학생의 4집단에 따른 의복행동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유행성, 의존성, 과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중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행성, 의존성, 과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애란, 김양진²⁹⁾은 남자가 여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을 통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고 의복을 통한 동조행동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고 하였다. 이은희³⁰⁾는 남녀 고등학생의 의복행동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행을 추구하는 경

향이 높았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적 매력성과 정숙성이 높게 나타났다. 심정은, 고애란³¹⁾은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의복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의식하며 의복을 과시적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정도가 크고,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이송자 외³²⁾는 남녀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을 연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을 많이 하며 의복관심이 높고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하며 과시적인 의복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조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성연 외³³⁾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미성, 정숙성, 심리적 안정성, 과시성, 의복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의복의 미적인 면과 단정한 면을 중요시하며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신체이미지, 의복행동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들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이 사용되었으며 측정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측정도구는 Heinberg et al.³⁴⁾에 의해 개발된 SAT-AQ(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척도를 사용하였다. SATAQ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내면화와 인식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TAQ 척도의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피험자를 대상으로 SATAQ 척도의 타당성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³⁵⁾를 토대로 내면화 측정문항을 선정하였으며,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을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측정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는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의 하위 척도 중 외모와 관련된 척도인 Appearance Evaluation Subscale(외모평가척도), Appearance Orientation Subscale(외모지향 척도), Overweight Preoccupation Subscale(체중관심 척도)의 문항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외모평가 측정문항 중 '나의 몸매는 성적으로 매력적이다.', '나는 나체 상태의 내 모습을 보길 좋아한다.' 등과 같은 문항은 피험자가 중·고등 학생이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잘못된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으며, 외모지향 척도 문항 중 신체적인 외모가 아닌 의복에 대한 문항은 의복행동 측정문항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1차로 제작된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를 통해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신체이미지 측정도구는 외모평가, 외모관심, 체중관심에 대한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71~.80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복행동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의복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들³⁶⁾³⁷⁾³⁸⁾에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복행동으로 나타난 의복 흥미성, 심리적 의복 의존성, 의복 과시성, 의복동조성, 의복 안락성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될 의복행동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서 의복행동 측정문항을 선별하여 총 23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측정도구를 제작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분석결과, 측정문항은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에서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과 2개 요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항은 제외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의복행동 측정문항은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58~.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모두 5점의 Likert 척도로 제시되었으며, 피험자의 성별, 연령, 학교, 학년 등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측정문항이 설문지에 포함되었다.

〈표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측정도구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측정문항 | 신뢰도계수 |
|--|--------------------|
| 나는 여성(남성)패션잡지를 보고 내 외모를 모델들과 비교한다. | .82(여자) .76(남자) |
| 날씬한 여자(남자)들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는 내가 날씬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든다. | |
| 나는 잡지와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내 몸을 비교해보는 경향이 있다. | |
| TV와 영화에 나오는 날씬한 여자(남자)들은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유형의 외모를 보여준다. | |
| 나는 내가 수영복 모델 같은 외모를 지녔으면 하고 바란다. | |
| 날씬한 여자(남자)들의 사진은 내가 날씬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든다. | |
| 나는 날씬한 모델이 입은 옷이 더 나아보인다고 믿는다. | |
| 나는 잡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보이길 바라지 않는다.* | |

* 결과의 해석을 위해 측정문항의 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입력한 문항임

<표 2>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 연령집단 | 중학생 | 고등학생 | 전체 |
|----|------|-----------|-----------|-----------|
| | 남자 | | 108(50.5) | 106(49.5) |
| 여자 | | 116(49.8) | 117(50.2) | 233(52.1) |
| 전체 | | 224(50.1) | 223(49.9) | 447(100) |

<표 3> 성별, 연령집단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성별 | | 연령집단 | |
|-----------------------|------|---------------|---------------|----------------|-----------------|
| | | 남자 (n=213) | 여자 (n=231) | 중학생 (n=221) | 고등학생 (n=223) |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 | 3.22 | 3.72 | 3.30 | 3.66 |
| | t 값 | -7.48*** | | -5.21*** | |

***p<.001

3.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총 447명이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4.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생 120명을 편의표집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신체이미지, 의복행동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58~.88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7년 2월 중·고등학교의 개학에 맞춰 실시하였으며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설문지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총 46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59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47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ver.11.5)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test, 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등이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총 8문항으로 구성된 내면화 측정도구의 평균점수를 계산하였다. 청소년집단의 전체 평균점수는 3.48(SD=.74)로, 측정도구가 5점 척도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은 현대사회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내면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에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외모에 대한 현대사회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더 내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험자를 성과 연령에 따라 4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을 실시한 결과($F=32.40, p<.001$)에서는 남자 중학생($M=2.96$)이 가장 낮은 내면화경향을, 여자 고등학생($M=3.81$)은 가장 높은 내면화 경향을 보여 매스미디어에서 보이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집단은 여자 고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1) 신체이미지의 구성요인

신체이미지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관심, 외모평가, 체중관심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9.33%로 나타났다.

외모관심 요인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가 멋지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25.64%의 설명력을 지녔고, 외모평가 요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구성되었으며 21.62%의 설명력을 보였다. 체중관심 요인은 자신의 체중변화에 민감하며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을 갖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12.07%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점수는 외모관심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

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지니는 것으로, 외모평가 요인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체중관심 요인에서는 자신의 체중변화에 민감하며 다이어트 등의 체중관리행동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성과 연령에 따른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 3요인에 대한 피험자의 성과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모관심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가 외모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중요성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외모평가 요인에서는 성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학생 시기에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적응 현상으로 외모에 대한 평가가 고등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 사료된다.

<표 4> 신체이미지의 구성요인

| 요인명 | 요인 구성 문항 | 요인 적재치 |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계수 |
|-------|---|--------|-------------------|
| 외모 관심 | 나는 아침에 몸치장이나 머리모양이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 | .81 | 25.64 (25.64) .80 |
| |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 .81 | |
| | 나는 자주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살펴본다. | .79 | |
| | 나는 나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 .71 | |
| 외모 평가 |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 .82 | 21.62 (47.26) .71 |
| | 나의 외모는 매력적이다. | .81 | |
| |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 .68 | |
| | 나는 외모 때문에 이성친구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 .55 | |
| 체중 관심 | 나는 항상 비만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 .80 | 12.07 (59.33) .71 |
| | 나는 절식 및 단식 등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다. | .74 | |
| | 다른 사람이 살찐다는 소리를 하면 내 몸무게가 늘지 않았어도 신경이 쓰인다. | .68 | |

* 요인분석시 결과의 해석을 위해 측정문항의 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입력한 문항임

<표 5> 성별, 연령별 신체이미지

| 신체이미지 | 집단구분 | | 성 별 | | 연 령 집 단 | |
|-------|---------------|---------------|----------|----------------|-----------------|----------|
| | 남자 (n=211) | 여자 (n=231) | t 값 | 중학생 (n=219) | 고등학생 (n=223) | t 값 |
| 외모 관심 | 3.24 | 3.51 | -3.75*** | 3.42 | 3.34 | .92 |
| 외모 평가 | 2.95 | 2.89 | .91 | 2.73 | 3.01 | -2.98*** |
| 체중 관심 | 2.87 | 3.36 | -7.24*** | 2.95 | 3.20 | -2.44** |

p<.01 *p<.001

<표 6> 의복행동의 구성요인

| 요인명 | 요인 구성 문항 | 요인 적재치 |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계수 |
|-------------------------------------|---|--------|-------------------------|
|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 나는 옷을 꼭 사지 않더라도 옷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 | .79 | 33.79 (33.79) .88 |
| | 나는 새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 .74 | |
| | 나는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본다. | .72 | |
| | 나는 옷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 .70 | |
| | 나는 옷이나 악세서리로 변화를 주는 것이 즐겁다. | .69 | |
| |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으면 외출하기 싫어진다. | .68 | |
| | 나는 일상생활이 단조롭게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기분전환을 한다. | .65 | |
| 나는 옷차림에 따라 기분이 명랑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 .54 | | |
| 의복 과시성 | 나는 비록 시선을 끈다 해도 독특하고 개성 있는 옷을 입기를 즐긴다. | .83 | 12.36 (46.15) .77 |
| |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옷을 선택하는 편이다.* | .72 | |
| | 같은 스타일, 같은 값의 옷이라면 나는 눈에 띄는 옷을 선택하겠다. | .72 | |
| 의복 동조성 | 나는 친구들이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색상의 옷을 선택한다. | .78 | 7.36 (53.51) .67 |
| |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 | .73 | |
| | 나는 새 옷을 살 때 친구들이 싫어하는 옷은 사지 않는다. | .64 | |
| 의복 안락성 | 나는 유행이 지난 옷이나 약간 낡은 옷이라도 편하면 입는다. | .77 | 6.20 (59.71) .58 |
| | 나는 내 친구들이 좋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옷을 그냥 입는다. | .60 | |
| | 나는 겉모양이 좋은 옷보다는 입어서 편안한 옷을 좋아한다. | .60 | |

* 요인분석시 결과의 해석을 위해 축적문항의 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입력한 문항임

체중관심 요인에서는 성과 연령집단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체중관리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의 이상적인 외모에서 날씬함에 대한 요구가 남자보다 특히 여자에게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높은 체중관심을 지니는 것이라 생각되며, 신체발달 과정상으로 볼 때 고등학생 시기는 피하지방이나 근육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실제적으로 중학생 시기에 비해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데, 이는 현대의 이상적인 외모와 역행하는 현상이므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체중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고등학생 시기는 과도한 학업에의 부담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열중하게 되므로 신체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3. 청소년의 의복행동

1) 의복행동의 구성요인

의복행동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

〈표 7〉 성별, 연령별 의복행동

| 의복행동 | 집단구분 | 성 별 | | t 값 | 연 령 집 단 | | t 값 |
|-------------|------|---------------|---------------|----------|----------------|-----------------|----------|
| | | 남자 (n=211) | 여자 (n=231) | | 중학생 (n=219) | 고등학생 (n=223) | |
| 의복관심/심리적의존성 | | 3.07 | 3.65 | -7.78*** | 3.29 | 3.45 | -2.12* |
| 의복 과시성 | | 3.12 | 3.25 | -1.58 | 3.14 | 3.23 | -1.08 |
| 의복 동조성 | | 2.57 | 2.57 | .03 | 2.63 | 2.50 | 2.01* |
| 의복 안락성 | | 3.17 | 3.06 | 1.75 | 2.98 | 3.24 | -3.97*** |

*p<.05. ***p<.001

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의복 과시성, 의복 동조성, 의복 안락성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9.71%로 나타났다.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요인은 의복에 많은 관심을 지니며 옷차림에 따라 명랑해지거나 우울해지는 등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하는 경향을 말하며, 33.79%의 설명력을 지녀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복 과시성 요인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독특하고 개성적인 옷을 입음으로써 타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청소년들의 심리가 반영된 의복행동으로 12.37%의 설명력을 보였다. 의복 동조성 요인은 또래집단과 유사한 의복을 입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7.36%의 설명력을 보였고, 의복 안락성 요인은 유행이나 타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고 입었을 때 편안한 의복을 선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6.20%의 설명력을 지녔다.

각 요인점수의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요인에서는 의복에 관심이 많고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의복 과시성 요인에서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의복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의복 동조성 요인에서는 또래집단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의복 안락성에서는 유행이나 타인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고 편안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성과 연령에 따른 의복행동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라 의복행동 4 요인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의복 과시성을 제외한 3 요인에서 성과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요인에서는 성과 연령 집단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t값을 고려해볼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며, 남자보다 여자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보다 여자가 유행성, 의존성, 과시성이 높으며,³⁹⁾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심리적 의존성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⁴⁰⁾ 결과와 일치한다. 의복 동조성 요인에서는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또래집단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려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안락성 요인에서는 성별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연령집단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타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고 입었을 때 편안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4.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와 신체이미지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제시된 내면화 측정도구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피험자를 3집단(1~2.5: 내면화 수준이 낮은 집단, 2.5이상~3.5: 내면화 수준이 중간인 집단, 3.5이상~5: 내

<표 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에 따른 신체이미지

| 종속변인 | | 독립변인 |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 | | F 값 |
|-----------|-------|----------|--------|-----------------------|----------|----------|----------|
| | | | | 낮은 집단 | 중간 집단 | 높은 집단 | |
| 신체 이미지 | 외모 관심 | 성별 | 남 자 | 2.40 c | 3.07 b | 3.70 a | 36.29*** |
| | | | 여 자 | 2.94 b | 3.23 b | 3.76 a | 18.54*** |
| | | 연령 집단 | 중학생 | 2.68 c | 3.21 b | 4.02 a | 45.61*** |
| | | | 고등학생 | 2.32 c | 3.04 b | 3.59 a | 26.81*** |
| | 전 체 | | 2.60 c | 3.14 b | 3.74 a | 59.88*** | |
| | 외모 평가 | 성별 | 남 자 | 2.95 | 2.98 | 2.92 | .16 |
| | | | 여 자 | 2.85 | 2.99 | 2.83 | 1.35 |
| | | 연령 집단 | 중학생 | 2.99 a | 2.87 ab | 2.68 b | 4.98** |
| | | | 고등학생 | 2.95 | 3.14 | 2.71 | 2.70 |
| | 전 체 | | 2.91 | 2.98 | 2.86 | 1.46 | |
| | 체중 관심 | 성별 | 남 자 | 2.39 b | 2.67 b | 3.01 a | 8.07*** |
| | | | 여 자 | 2.73 b | 3.01 b | 3.46 a | 18.47*** |
| 연령 집단 | | 중학생 | 2.36 c | 2.78 b | 3.32 a | 15.84*** | |
| | | 고등학생 | 2.65 b | 2.89 b | 3.38 a | 13.83*** | |
| 전 체 | | 2.52 c | 2.82 b | 3.29 a | 32.39*** | | |

p<0.01, *p<.001

면화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는 외모관심과 체중관심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내면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높은 관심을 지녔으며 내면화수준이 높을수록 체중관심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 집단은 자신의 신체가 실제적으로 마르거나 비만한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체중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여 지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다이어트, 단식 등의 직접적인 체중조절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체중조절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는 성과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피험자의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심 요인에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 내면화 수준에 따라 외모관심에 차이가 있어,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을 고려해볼 때 내면화 수준은 특히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의 외모관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는 남자 청소년의 외모관심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변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외모관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외모관심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아직 자아개념이 발달하지 않고 외부의 판단기준에 많은 영향을 받기 쉬운 중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모평가 요인에서는 중학생 집단에서만 내면화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의 경우 내면화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신체이미지를 새로이 형성

<표 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에 따른 의복행동

| 종속변인 | | 독립변인 |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 | | F 값 |
|----------|-----------------|----------|--------|-----------------------|---------|----------|----------|
| | | | | 낮은 집단 | 중간 집단 | 높은 집단 | |
| 의복 행동 | 의복관심/ 심리적인존성 | 성별 | 남 자 | 2.29 c | 2.91 b | 3.54 a | 30.54*** |
| | | | 여 자 | 2.83 c | 3.40 b | 3.90 a | 24.28*** |
| | | 연령 집단 | 중학생 | 2.55 c | 3.16 b | 3.81 a | 36.16*** |
| | | | 고등학생 | 2.27 c | 3.08 b | 3.74 a | 28.65*** |
| | 전 체 | | 2.49 c | 3.13 b | 3.77 a | 66.26*** | |
| | 의복 과시성 | 성별 | 남 자 | 2.49 b | 3.04 a | 3.39 a | 9.64*** |
| | | | 여 자 | 2.58 c | 2.99 b | 3.49 a | 16.53*** |
| | | 연령 집단 | 중학생 | 2.38 c | 3.07 b | 3.54 a | 19.22*** |
| | | | 고등학생 | 2.95 b | 3.05 b | 3.41 a | 8.95*** |
| | 전 체 | | 2.53 c | 3.02 b | 3.46 a | 26.49*** | |
| | 의복 동조성 | 성별 | 남 자 | 2.13 b | 2.63 a | 2.62 a | 4.96** |
| | | | 여 자 | 2.25 b | 2.45 ab | 2.68 a | 4.66** |
| | | 연령 집단 | 중학생 | 2.33 b | 2.64 a | 2.74 a | 3.55* |
| | | | 고등학생 | 1.57 b | 2.41 a | 2.61 a | 9.49*** |
| | 전 체 | | 2.17 b | 2.55 a | 2.66 a | 7.51*** | |
| | 의복 안락성 | 성별 | 남 자 | 3.49 a | 3.17 b | 3.09 b | 3.03* |
| 여 자 | | | 3.39 a | 3.22 ab | 2.92 b | 6.59** | |
| 연령 집단 | | 중학생 | 3.28 a | 3.08 a | 2.74 b | 8.90*** | |
| | | 고등학생 | 4.10 a | 3.37 b | 3.12 b | 10.33*** | |
| 전 체 | | 3.46 a | 3.20 b | 2.99 b | 9.50*** | | |

*p<.05, **p<.01, ***p<.001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여 지는 이상적인 외모를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은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크다고 한 선행연구⁴¹⁾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체중관심 요인에서는 모든 청소년 집단에서 내면화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내면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와 의복행동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는 모든 의복행동 요인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에 관심이 많고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내면화 수준이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여 의복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려는 경향과 동조성은 낮으나 의복 안락성은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의 의복행동 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피험자의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 요인에서는 모든 청소년 집단에서 내면화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의복 과시성 요인에서는 모든 청소년 집

단에서 내면화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특히 여자 청소년과 중학생 집단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개성 있고 독특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이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의복동조성 요인에서도 모든 청소년 집단에서 내면화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특히 고등학생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내면화 수준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또래집단과의 유사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복 안락성 요인에서도 모든 청소년집단에서 내면화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특히 고등학생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내면화 수준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편안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신체이미지 및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청소년의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와 체중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이었으며, 의복에 대한 관심과 심리적 의존성이 크고 의복과시성과 안락성은 중간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의복동조성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과 연령집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체중변화에 민감하며, 의복관심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고 체중변화에 민감하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행동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존성이 높고 안락성을 중시하는 반면, 의복동조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는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주어 내면화 수준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외모와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내면화 수준은 여자보다 남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외모관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외모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내면화가 외모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중학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는 고등학생보다 자아개념이 성숙되지 않은 중학생들의 신체이미지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는 모든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어 내면화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복관심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고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의복동조성과 안락성은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상대적인 차이는 있으나 성과 연령에 따른 모든 청소년집단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은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 형성과 의복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할수록 남자 청소년은 자신의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며 남녀 청소년은 체중관심과 의복관심 및 심리적 의복 의존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하게 됨으로써 울

바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노출되는 여러 외부자극을 선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고 일부 지역의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현대사회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을 청소년의 성별, 연령별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는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여겨진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에 따른 체중 조절행동 및 외모 관리 행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Rudd, N. A., & Lennon, S. J. (2001). Body image: linking aesthetics and social psychology of appeara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3), pp. 120-129.
- 2) Keeton, W. P., Cash, T. F., & Brown, T. A. (1990). Body image or body images?: Comparativ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1&2), pp. 213-230.
- 3)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pp. 339-353.
- 4) 장희순 (2007) 한국의 성형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청소년의 신체상과 성형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7, pp. 6-7.
- 5) Levine, M. P. & Smolak, L. (1996). Media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disordered eating. In Smolak, K., Levine, M. P., and Sriegel-Moore, R. (ed.).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Eating Disorders: Implications for Research, Prevention and Treatment*. New York: Earlbbaum Mahwah, pp. 233-257.
- 6) Stice, E. & Shaw, H. E. (1994). Adverse effects of the media portrayed thin-ideal on woman and linkages to bulimia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pp. 288-308.
- 7) 이미숙 (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0-86.
- 8) 이수경, 고애란 (2005). 여자 중학생의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한국의류학회지*, 29(3/4), pp. 438-448.
- 9) 고은주, 장남경 (2003).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연구를 통한 패션마케팅전략제안. *대한가정학회지*, 41(12), pp. 13-26.
- 10)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7), pp. 1227-1238.
- 11) 장희순, 김태련 (2006). 대중매체 노출이 신체상 지각과 상태 신체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2), pp. 57-83.
- 12) 홍금희 (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pp. 48-54.
- 13) Cash, T. F., Winstead, B. W., & Janda, L. H.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up: Body image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20(4), pp. 30-37.
- 14) 김재숙, 이미숙 (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5), pp. 957-968.
- 15) 윤진 (1993). *청소년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 도서출판 서원, pp. 1-16.
- 16) Richards, M. H., Boxer, A., Peter, A. C., & Albrecht, R. (1990). Relations of weight to body image in public girls and boys from two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pp. 313-321.
- 17) 이가영 (1997). 신세대 의복행동에 나타난 TV의 영향에 관한 연구-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1-54.
- 18)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pp. 667-681.
- 19) 이명희 (2003).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 /10), pp. 1101-1111.
- 20) 이은희 (2007).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pp. 49-58.
- 21) 임경희. *앞의 책*, p. 127.
- 22) 고은주, 장남경. *앞의 책*, pp. 17-18.
- 23) 박지현 (2007).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3), pp. 75-85.

- 24)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358-365.
- 25) 송경자, 김재숙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요구, 자아개념, 의복행동-다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pp. 391-402.
- 26)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pp. 133-154.
- 27) MacGillivray, M. S., & Wilson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 (1), pp. 43-59.
- 28) 고은주, 장남경. 앞의 책, pp. 19-21.
- 29) 고애란, 김양진. 앞의 책, pp. 667-681.
- 30) 이은희. 앞의 책, p. 54.
- 31) 심정은, 고애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pp. 1334-1345.
- 32) 이송자, 박인숙, 이수정 (2004). 남·녀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6(4), pp. 467-474.
- 33) 박성연, 이종미, 임숙자 (2001).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pp. 1-18.
- 34)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pp. 81-89.
- 35)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pp. 927-940.
- 36)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pp. 715-726.
- 37) 고은주, 장남경. 앞의 책, pp. 13-26.
- 38) 이미숙. 앞의 책, p. 77.
- 39) 고은주, 장남경. 앞의 책, pp. 19-21.
- 40) 고애란, 김양진. 앞의 책, pp. 667-681.
- 41) Groesz, L. M., Levine, M. P., & Murnen, K. K. (2002). The effect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pp.1-16.